[UCI]I804:24011-200000241348

2011년 2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중학교「생활국어」문법 영역 교수 · 학습 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김 지 수

중학교「생활국어」문법 영역 교수 · 학습 방안 연구

A Study on Teaching · Learning Way about
Korean Grammar of Practical Korean Language Textbook
in the Middle School

2011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김 지 수

중학교「생활국어」문법 영역 교수 · 학습 방안 연구

지도교수 최 재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국어교육)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10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김 지 수

김지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강 희 숙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 옥 미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 재 희 인

2010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

ABSTRACT

제1장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1.2. 선행 연구 검토 2
1.3. 연구 범위와 방법 4

제2장 중학교「생활국어」문법 영역 분석 5
2.1. 제7차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성격 및 목표 5
2.2. 제7차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내용체계 7
2.3. 교육과정과 중학교 「생활국어」의 연계성 8
2.4. 학년별「생활국어」문법 영역 단원 분석 15

제3장 문법 영역의 교수 · 학습 방안 31
3.1. 문법 영역 지도 방법의 문제점 31
3.2. 설명식 학습과 탐구학습의 실험 34
3.3. 문법 영역의 교수 · 학습의 실제 39

제4장 결론 48

참고문헌 50
부록 53

- 표목차 -

<표1> 중학교 국어과 문법 영역 교육내용 체계 8
<표2> 중학교「생활국어」 문법 영역 관련 단원 9
<표3>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법 내용 체계 10
<표4>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법 체계 12
<표5> 7학년 문법 단원-내용-활동 구성표 15
<표6> 8학년 문법 단원-내용-활동 구성표 20
<표7> 9학년 문법 단원-내용-활동 구성표 25
<표8> 설명식 수업과 탐구학습에 따른 학업성취도 37
<도표1>설명식 수업과 탐구학습에 따른 학업성취도 38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 Learning Way about Korean Grammar of Practical Korean Language Textbook in the Middle School

Kim Jisu
Advisor : Prof. Choe Jaehee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course of study is changed by inner and outer factors. It may be indicated change of demand according to the times as the outer factor and change of the theory of curriculum or the method of teaching as inner factor.

In the seventh middle school course of study, as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was divided into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the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literature, customary unit of grammar was included among the unit of the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The name of grammar was changed into the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and then the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was changed into the name of grammar again.

In the field of Korean Education, it has been pointed out the contents of the subject, teachers' teaching method and learners' effective learning have got some problems with teaching grammar about the Korean language. In addition, some methods using investigation studying was proposed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but still, there are some restrictions to be applied to the whole fields of teaching grammar about the Korean language.

To make it worse, there has been some research on how to teach or deliver grammar about the Korean language but not on what should be carried out on real classes, so most of the classes are teacher-centered only emphasizing the concepts as the most important things. Learners used to memorize grammar rules only for getting good grades and as a result they've started to lose interest in grammar about the Korean language and think Korean, as subject, is

just a boring one.

Therefore, this paper provides the analysis of one of the 7th curriculum textbooks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Living Korean’ and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which is expected to induce students' diverse activities in classes and result in improving their communicative competence.

Furthermore, to make grammar about the Korean language more useful and meaningful to leaners, they should have the responsibility over their own learning, which can be referred as learner-centered learning. In addition a lot of methods have been applied to the teaching of ‘The Structure of Sentence’, such as, planning study in meaningful context, making sentenced with flash cards through cooperative work, filling-in blanks, writing short stories and so on.

Those methods and studies suggested through this paper are expected to be given improved recognition and make Korean Language classes more interesting.

제1장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의 사용과 언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이다.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의 사용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언어의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물론 문법[1]을 학습하는 것이 곧바로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문법은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과 이해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문법의 지도는 화자가 가진 인지적 지식을 수정 보완하게 하여 언어사용능력에 작용하는 지식을 발달시키고, 그 결과 국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어 교과 중에서도 문법 영역에 속하는 부분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문법 영역의 부분들은 대체로 지루하고 교수·학습 면에서도 어렵고 까다로운 이유에서이다(김효진, 2004). 문법 영역에 대한 교수법은 대부분 교사 설명식 수업으로 단편적인 문법만을 주입하고 암기하는데 그쳐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감소시켰다. 교수·학습 전략의 개선을 통해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스스로 잘못된 문장을 바르게 고칠 수 있고, 정확하고 논리적이며 규범에 맞는 문장을 쓰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한다(엄미리, 2008:111~112).

본고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2]의 관점을 바탕으로 중학교 「생활국어」교과서에 실

---

1)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현재의 문법을 제4차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 사용해 온 '언어'라는 영역의 이름 대신 '국어지식'이라는 영역 이름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국어'의 교육대상이 되는 언어가 '국어'이지 '언어' 일반일 수 없고, '언어'와 '국어'와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상위 개념이 하위 개념의 밑에 놓이게 되며, '언어' 영역에서 제시하였던 교육 내용의 대부분이 언어 일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로 '국어의 구조와 체계'에 대한 지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역의 이름을 '국어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이 학습자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도울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선정·조직하는데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1999) 중학교 교육과정해설<Ⅱ> p.18)
본 연구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까지 쓰인 '언어'영역과 제7차 교육과정의 '국어지식'영역을 현재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법'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되, 제7차 교육과정 이전의 논의를 언급할 경우에는 당시에 사용되는 용어를 인용하였다.

2) 1997년 12월 30일 교육과정 개정 고시
제7차 교육과정 시행 2000년 3. 1. : 초등 1학년, 2학년
2001년 3. 1. : 초등 3학년, 4학년, 중등 1학년
2002년 3. 1. : 초등 5학년, 6학년, 중등 2학년, 고등 1학년
2003년 3. 1. : 중등 3학년, 고등 2학년
2004년 3. 1. : 고등 3학년
2007년 6. 1 : 초중등학교

린 '문법'영역의 내용을 분석하고, 학생활동 중심, 과정 중심의 학습활동의 재미있고 현실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실생활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검토

문법영역과 문법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는 예전부터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며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 이후 더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영목 · 한철우 · 윤희원(1995)은 그 동안의 문법 영역의 교육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의 언어 사용능력의 획득에 중심을 두지 않고 언어 사용 후의 결과 분석에 중심을 두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더불어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이 학생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한 학생활동중심의 수업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업 설계모형으로 목표 설정, 기본 학습, 탐구 학습, 발전 학습, 평가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고유숙(2006)은 탐구학습의 과정중심, 학생 활동 중심을 기본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 목적을 두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 단원설정의 합리성, 제재의 정합성, 비중의 타당성의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박선영(2002)은 학교문법의 교육 약사를 살피고 현행 중학교 국어과 문법 영역의 교육을 분석하였으며, 국어과 문법 영역의 탐구학습 모형을 중심으로 탐구학습에 협동학습을 보완한 혼합 모형을 통해 학습자들의 탐구능력을 신장 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였다.

김광해(1997)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탐구 학습을 주장하고 문제의 정의, 의문의 구체화, 결론 진술, 결론의 적용 및 구체화의 4단계와 문제의 정의, 가설 설정, 가설 검증, 결론 진술, 결론의 적용 및 일반화의 5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김효진(2004)은 문헌 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해 중학교 3학년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을 협동학습과 탐구학습의 혼합 모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문법 영역을 보다 흥미있게 자발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소라빛(2000)은 현행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학습 활동의 구성이 형태를 중심으로 한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고, 문장을 최대 단위로 한 언어 자료와 학습자의 사고 확장을 위한 활동의 부재를 지적하고 '국어사용 능력의 신장'이라는 국어교육의 목표와 문

2007년 2월 28일 7차 개정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
제7차 개정 교육과정 시행
2009년 3. 1 : 초등 1,2학년
2010년 3. 1 : 초등 3,4학년, 중등 1학년

법의 특수성을 포함한 새로운 학습 활동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이혜선(2004)은 중학교 「생활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문법 영역의 단원을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하기, 듣기, 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다양한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원활한 언어 사용의 기반을 제공을 주장하고 있다.

박보규(2002)는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법 영역을 비교하고, 문법 영역의 실제 수업에 탐구 모형 학습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여 문법 영역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주장하였다.

김진섭(2001)은 탐구학습 모형을 응용하여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모형인 기초형, 응용형, 발전형 탐구학습 프로그램을 고안하였으나 그 대상을 초등학교 교육현장에 국한 시킨 것에 문제점을 지닌다.

박명진(2003)은 학습자 중심의 탐구학습 모형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교사와 학습자간의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사회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모형개발에 적용하여 수업의 각 단계를 설정하여 수업시작, 문제제기와 가설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 결론의 도출 및 일반화, 정리 및 평가의 순서를 주장하였다. 이 모형은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다른 교수 매체를 활용하기보다 수업의 많은 부분을 교사의 몫으로 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김귀영(2003)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시한 문법 영역의 개념을 살피고, 제7차 교육과정과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문법 영역의 내용체계분석과 교수·학습 방법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문법 영역 교육의 문제점과 대책의 연구로 문법 영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유선(2003)은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법 영역의 특징을 제6차 교육과정과 비교·분석하였고 7학년 교과서의 문법 영역의 체계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문법 영역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연구들은 대부분 문법 영역의 위상과 필요성, 교육적 가치, 목표,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중학교 생활국어 문법 영역 단원 분석에 관련된 것으로 이미 모국어에 대한 지식과 직관력을 지니고 있는 학습자에게 설명식 수업 방법을 통해 단순한 문법적 지식을 주입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으며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탐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수·학습 적용 사례를 보여준 것은 미비하며, 있다하더라도 극히 일부분의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는 것이 많아 효과의 객관적인 검증에는 부족함이 있다. 제7차 교육과정과 7차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 이후 발표된 연구 논문들 역시 교과서에 나타난 문법 영역의 문제점 제시와 교육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모색, 이론에서 더욱 발전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교수·학습 방법 개발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학교 국정교과서[3]「생활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문법 영역을 분석하고 학생 중심의 탐구학습을 적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1.3. 연구 범위와 방법

본고에서는 제7차 중학교(7,8,9학년)「생활국어」국정 교과서 문법 영역 단원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논하고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본고는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국정교과서의 문법 영역 연구이므로 제2장에서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는 문법 영역에 대한 고찰과 중학교「생활국어」의 문법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연계성을 논의할 것이다. 또한「생활국어」문법 영역의 단원의 내용체계를 학년별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7차 교육과정과 2009년도부터 시행된 7차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고는 제7차 교육과정 이후 문법 영역의 단원이 종래의 교사의 설명식 수업, 주입암기식 교수·학습 방법에서 학생의 활동 중심의 능동적인 학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였기에 제3장에서는 그간의 문법 영역 지도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설명식 수업과 탐구학습 수업 모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비교해 문법 영역에서 설명식 수업 모형보다 탐구학습 수업 모형 수업이 더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학교 학년별「생활국어」의 문법 영역 중 한 단원씩을 제시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1차시 분량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학년별로 제시할 것이다. 문법 영역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한 학생 활동 중심의 탐구학습 모형을 적용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통해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중학교 문법 영역 교수·학습 방안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며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3) 국정 교과서란, 나라에서 지정한 교과서이다. 7차 개정교육과정 이전까지는 중학교 국어교과서(국어,생활국어)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행한 국정교과서였으나, 2009년부터 검정 교과서로 변경되었다. 본고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정 중학교 생활국어 교과서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제2장 중학교「생활국어」문법 영역 분석

2.1. 제7차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성격 및 목표

2.1.1. 성격

국어과의 성격은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화 사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라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1998). 또한 국어과에서는 국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목적과 대상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국어사용 양상과 내용을 정확하고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이고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언어와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와 이론에서의 언어현상을 탐구하고 이것을 국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4] 이에 필요한 국어 교육의 내용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6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 문법 영역은 “문법 영역의 학습은 언어 현상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탐구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학습한 지식을 국어사용 상황에 적용하는 활동을 강조한다(교육부, 1999).”고 제시하며 문법을 단순 암기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탐구 학습을 강조하여 국어를 더 잘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력과 국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통찰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2.1.2. 목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전문과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표현과 이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본질, 원리, 태도를 명시하고 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8).

---

4) 국어과 교육의 핵심은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 향상’으로, 이 핵심을 이루는데 필요한 국어 교육의 내용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6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과 교육 목표 >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과 교육 목표를 보면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민족 언어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전문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을 글로 표현하고 있으며, 세 가지의 하위 목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문법영역의 교육 목표는 국어과 교육 목표와 같이 전문과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어능력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제시되어있다. 문법 영역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8).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문법영역의 교육 목표>

국어에 대한 탐구 과정을 통한 통찰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언어와 국어의 문화적 가치 및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국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가. 언어와 국어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한다.
나. 국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영위한다.
다. 국어를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태도를 지닌다.

문법 영역의 교육 목표는 국어과 교육 목표보다는 하위 항목의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문법 영역의 교육 목표라고 보기 어렵게 포괄적이며, 문법 교육의 특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다. 언어와 국어의 문화적 가치나 효과적인 국어 생활의 영위, 국어를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태도 등은 문법뿐만 아니라 문학에도 해당되는 목표이다. 바르게 읽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쓰는 문법이라는 영역의 특성을 잘 살려 구체적이고 명확한 교육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2.2. 제7차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의 내용체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 신장을 목표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 선정한 교육내용이 국어 교육의 최상위 목표 성취에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문법 영역의 교육 내용은 공통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언어의 기본적인 특징과 변천을 기본으로 한 '국어의 본질', 문법 단위의 순서로 제시한 '국어의 이해와 탐구', 실제 국어에 대한 흥미와 가치에 의미를 둔 '국어에 대한 태도', 위의 세 가지 범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국어의 규범과 적용'의 네 가지로 범주화한 뒤 '내용 체계'를 구조화하였다. '국어의 본질'과 '국어의 이해와 탐구' 범주의 교육내용이 국어에 대한 지식이고, 이것의 일차적인 교육 목적이 지식의 이해와 지식의 활용에 있다고 보고, 탐구 중심의 학습 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의도하여 '국어의 이해와 탐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국어 규범' 범주의 교육내용은 맞춤법 및 표준 발음 등과 관련된 각종 규범에 대한 지식 습득과 그 지식을 실제의 국어 생활에 활용하여 보다 향상된 국어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국어의 규범과 적용'이라는 범주명을 사용하였다. '태도' 교육 내용은 '국어에 대한 태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들 교육 내용이 '내용 체계'에는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나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는 각 범주 간, 교육 내용 간 상호교섭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과 교육 내용체계 중 문법 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중학교 국어과 문법 영역 교육내용 체계[5)]

<table>
<tr><th>영역</th><th colspan="3">내용</th></tr>
<tr><td rowspan="2">국어지식</td><td>◦ 국어의 본질
- 언어의 특성
- 국어의 특질
- 국어의 변천</td><td>◦ 국어의 이해와 탐구
- 음운
- 낱말
- 어휘
- 문장
- 의미
- 담화</td><td>◦ 국어에 대한 태도
- 동기
- 흥미
- 습관
- 가치</td></tr>
<tr><td colspan="3">◦ 규범과 적용
- 표준어와 표준발음 - 맞춤법 - 문법</td></tr>
</table>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문법 영역은 국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고력과 통찰력의 신장을 위해 각 영역별로 범주화하고 하위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상이한 항목이 있다면 '규범과 적용'의 범주명 안에 포함된 문법이라는 하위항목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제7차 교육과정으로 변화되어 오면서 언어라는 영역이 포괄적이므로 국어지식이라는 명칭으로 변화하였다. 범주의 크기에 따른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규범과 적용'이라는 내용체계 안에 표준어와 표준발음, 맞춤법과 함께 범주가 더 큰 문법이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은 구성상의 오류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명칭은 다른 명칭으로 교체되어야 할 것이다.

2.3. 교육과정과 중학교「생활국어」의 연계성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매우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 편찬의 내용과 형식의 방향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교과서는 교수·학습에서 교육과정의 내용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매체이다. 그래서 교과서는 교수·학습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한다.

국어 교과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국어' 교과의 특성을 살려 국어사용 능력을 균형있게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각 영역의

5) 교육부, (1998) 「국어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지식이란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나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법 영역으로 변경하였다.

교육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되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지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변천과 함께 내용이나 체계가 변화되었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 신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읽기와 문학영역 중심의 「국어」교과서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심의 「생활국어」교과서로 구성되었다. 또한 각 교육 내용의 성격에 맞게 통합하는 단원을 구성하여 수록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교과서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문법, 문학의 각 여섯 영역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중학교 「생활국어」교과서에는 듣기, 말하기, 쓰기, 문법과 같은 국어교육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중학교 「생활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문법 영역 단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생활국어」교과서의 문법 영역 관련 단원 (교육부,1999)

「생활국어」교과서의 문법 영역 관련 단원		
	1학기	2학기
7학년	4. 국어 생활의 반성 (1) 외래어, 은어, 비속어, 유행어 (2) 국어 생활 반성하기 6. 상황에 맞게 말하기 (1) 상황에 맞게 말하는 방법 (2) 상황에 맞게 말하는 연습	2. 낱말과 형태소 (1) 음절과 어절, 낱말 (2) 형태소 5. 낱말의 의미 (1) 동음이의어 (2) 다의어
8학년	3.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 (1) 국어의 언어적 특징 (2) 국어의 음운 6. 바르게 쓰기 (1) 바른 문장 쓰기 (2) 올바른 국어 생활	2. 낱말 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 (1) 낱말의 형성법 (2) 국어의 관용어 5. 발화의 기능과 표현 (1) 발화의 여러 가지 기능 (2) 발화의 기능을 고려하여 말하기
9학년	2.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1) 맞춤법의 기능 (2) 맞춤법에 맞게 쓰기 4. 음운의 변동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2) 음운의 동화 (3) 음운의 축약과 탈락 6. 남북한의 언어 (1) 남북한 언어의 차이 (2) 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	2. 문장의 구조 (1) 문장의 구조 (2) 문장의 주성분 (3) 문장의 부속성분과 독립성분 (4) 중의적 표현 5. 품사의 종류 (1) 단어의 분류 (2) 품사의 특성

이렇듯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교육 과정에서 문법 영역은 주로「생활국어」교과서에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학년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 중 음성 언어와 문자언어의 관계, 국어 순화의 태도부분이 「생활국어」교과서가 아닌「국어」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6] 모든 학년의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내용이 「생활국어」교과서에 빠짐없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국어」교과서의 구성은 '대단원 표지, 학습목표 제시, 단원의 길잡이, 소단원, 보충·심화학습, 단원을 마치며'의 순서로 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과 중학교 「생활국어」교과서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다. 교육과정에 따라 그 내용을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내용과 단원 목표의 일치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문법 영역의 학년별 내용은 지식의 난이도와 순차성, 언어 구조의 복잡성, 동일 학년 내에서 다른 영역의 교육 내용과의 관련성을 중시하였다. '국어 이해와 탐구' 범주의 교육 내용은 '언어의 본질적 속성→언어와 주변 세계와의 관계'순으로, '국어에 대한 태도' 범주의 교육 내용은 '우리말의 중요성 인식→규범에 맞는 국어사용의 태도 형성→우리말을 가꾸고 발전시키려는 태도의 형성'순으로 내용을 배열하였다(교육부, 1999).

2009년까지 계속되었던 7차 교육과정과 2009년부터 시행된 7차 개정교육과정의 문법 부분은 그 내용에 있어서 비슷한 면모를 보이나 성취기준과 학습 요소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였다. 7차 교육과정과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법 내용 체계 (교육부, 1999)

7차 교육과정		
학년	성취 기준	의도하는 학습 및 활동 계획, 학습 요소
7학년	(1)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와의 관계를 안다.	·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특징 알기 ·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알기
	(2) 음절의 개념을 안다.	· 음절의 형성 원리 알기 · 음운과 음절의 관계 알기 · 음절의 개념 알기
	(3) 형태소와 낱말의 개념을 안다.	· 형태소와 낱말의 개념 알기 · 형태소와 낱말의 관계 알기

6)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생활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문법'영역만을 다루므로 중학교 1학년「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문법'영역의 부분은 제외하도록 한다.

	(4)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의 개념을 안다.	· 은어/전문어/속어/비어/유행어의 개념 알기 ·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의 상호 관계에 대해 알기
	(5)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안다.	·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 관계 알기 ·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알기 ·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구별하기
	(6) 담화의 구성을 안다.	· 담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기 · 담화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기 · 담화가 표현되는 양상 알기 · 담화가 해석되는 양상 알기
	(7) 국어를 순화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국어 순화의 개념과 필요성 알기 · 국어를 순화하려는 방법 알기 · 국어 순화 실천하기
8학년	(1) 언어의 사회성을 안다.	·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 알기 ·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개념 알기 · 언어의 사회적 특성 알기 · 언어의 사회적 제약 알기
	(2) 언어의 역사성을 안다.	·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개념 알기 · 언어가 변화하는 이유 알기 · 언어의 사회성과 언어의 역사성과의 관계 알기
	(3) 국어의 음운 체계를 안다.	· 음성과 음운의 차이 알기 · 국어의 모음 체계 알기 · 국어의 자음 체계 알기
	(4) 국어의 조어법을 안다.	· 낱말을 형성하는 단위 알기 · 낱말을 형성하는 방법 알기 · 국어 낱말의 종류 알기
	(5) 관용어의 개념을 안다.	· 관용어의 개념 알기 · 관용어의 종류 알기 · 우리말 관용어의 특징 알기
	(6) 발화의 기능을 안다.	· 발화의 개념 알기 · 발화의 종류 알기 · 발화의 기능 알기
	(7) 국어사용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국어사용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알기 · 국어사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알기 · 국어사용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9학	(1)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안다.	· 남북한 언어 차이의 현실 알기 ·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알기

년	(2)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안다.	· 음운 변동의 개념 알기 ·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의 종류 알기 · 음운의 변동과 올바른 발음과의 관계 알기 · 음운의 변동과 표기와의 관계 알기
	(3) 품사의 분류 기준과 각 품사의 특성을 안다.	· 품사의 개념 알기 · 품사의 분류 기준 알기 · 각 품사의 특성 알기
	(4) 각 문장 성분의 특성과 문장의 구성 원리를 안다.	· 문장 성분의 개념과 종류 알기 · 각 문장 성분의 특성 알기 · 문장의 구성 원리 알기
	(5) 문장의 구조로 말미암아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현상을 안다.	· 중의적 표현의 개념과 종류 알기 · 문장의 구조적 중의성에 대한 개념 알기 · 중의적 표현이 생기는 원인 알기 · 중의적 표현의 장단점 알기
	(6)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 알기 · 우리말의 맞춤법 알기 · 맞춤법에 맞게 국어 사용하기
	(7)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알기 ·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는 방법 알기 ·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는 것의 필요성 알기 ·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기

<표4> **제7차 개정교육과정**에 나타난 문법 체계 (교육부, 2007)

7차 개정 교육과정		
학년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7학년	(1)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 언어의 기능과 특성 이해하기 ·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 비교하기 ·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사용하기
	(2)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	· 속담, 명언, 관용어 등의 개념 이해하기 · 관용 표현 사용의 효과를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기 · 관용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 이해하기
	(3)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특성을 이해한다.	· 품사의 개념 이해하기 · 품사의 분류 기준 발견하기 · 품사 분류하기 · 품사의 종류와 특성 설명하기

	(4) 표현 의도에 따라 사동·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	· 사동·피동 표현의 개념 이해하기 · 사동·피동 표현에 따라 의미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기 · 사동·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심리적·사회적 특성 이해하기
	(5) 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지시어의 개념 이해하기 · 담화 또는 글에서 지시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기 · 지시어가 담화 또는 글 전체 구조에 끼치는 의미 관계 파악하기
8학년	(1)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한다.	·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하여 이해하기 ·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의 원인과 실태 파악하기 ·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 찾기
	(2) 여러 종류의 어휘를 비교하고 그 사용 양상을 설명한다.	· 전문어, 유행어, 은어의 개념과 관계 이해하기 · 전문어, 유행어, 은어의 사용 양상 및 특성 이해하기 · 전문어, 유행어, 은어 사용의 효과와 문제점 파악하기
	(3) 국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 단어 형성과 관련된 국어의 특질 이해하기 · 형태소와 단어 개념 이해하기 · 단어의 짜임(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이해하기 · 단어 형성법을 알고 창조적으로 활용하기
	(4)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을 이해한다.	· 중의적 표현과 모호한 표현 구별하기 · 중의적 표현을 해석하고 표현의 장단점 이해하기 · 모호한 표현이 된 이유를 지적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고치기
	(5)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상황 맥락이 관여함을 이해한다.	· 상황 맥락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 · 상황 맥락이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9학년	(1) 언어의 규칙성, 사회성, 역사성, 기호성, 창조성 등을 이해한다.	· 언어의 규칙성, 사회성, 역사성, 기호성, 창조성 등의 개념 이해하기 · 언어의 다양한 특성 이해하기 · 언어와 문화의 관계 이해하기
	(2) 국어의 음운 체계를 이해한다.	· 국어 음운 체계의 개념 이해하기 · 국어 음운의 특성 이해하기 · 국어 음운의 변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3) 문장의 짜임새를 설명한다.	· 서술어와 자릿수의 기능 이해하기 · 문장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문장을 확장하는 방법 이해하기 ·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을 알고 문장의 연결 방식 이해하기
	(4) 담화 또는 글 구성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 통일성과 응집성의 개념 이해하기 · 담화 또는 글에서 통일성과 응집성 판단하기
	(5) 한국어의 언어 문화적 특성과 가치를 이해한다.	· 언어 문화적 특성과 언어의 관계 이해하기 · 한국어에 담긴 언어 문화적 특성 파악하기 ·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한국어의 위상 점검하기

위의 비교표를 보면 문법 단원의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 있었던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개정교육과정에서는 8학년으로 바뀌었고, 가장 큰 변화로 보이는 것은 8학년에 있던 관용표현이 7학년으로, 9학년에 있던 품사 단원이 7학년으로 옮겨가 품사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한 후 8, 9학년에 있는 단어형성법이나 문장의 짜임을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배열되었다고 볼 수 있다. 8학년 음운체계를 9학년으로, 7학년에 있던 담화구성을 9학년 과정으로 옮겨놓았다. 또한 7학년의 형태소 단원을 8학년의 단어형성법으로 이동시키고 9학년의 중의적 표현을 8학년에 배치하였다. 이렇게 단원의 순서와 학년을 이동시킨 것은 문법 단위에 따른 학습내용의 순서와 단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보여 지며, 무엇보다도 학습자가 쉽게 문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에서일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문법 단위의 순서대로 단원이 재배열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개정교육과정 9학년에 배열된 국어의 음운체계가 7학년으로 배열되었어야 더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4. 학년별 「생활국어」의 문법 영역 분석

2.4.1. 7학년「생활국어」의 문법 영역 단원 분석

학기별로 나누어진 7학년(중학교 1학년) 「생활국어」교과서에는 모두 4개의 '문법'영역의 단원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단원들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준별 학습활동을 학습목표와 결부시키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 국정 교과서의 학년별 교육과정에 따른 내용과【기본】,【심화】로 제시된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 그에 따른 교과서 단원은 다음과 같다.

<표5> 7학년 문법 단원-내용-활동 구성표 (교육부, 1999)

내용	교과서 단원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
(1) 음성언어와 문자 언어의 관계를 안다.		【기본】 ◦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개념을 알고, 둘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심화】 ◦ 음성 언어의 사용할 때와 문자 언어를 사용할 때의 장단점에 대해 토의한다.
(2) 음절의 개념을 안다.	생활국어 2학기 2. 낱말과 형태소 (1) 음절과 어절, 낱말	【기본】 ◦ 음운과 음절의 관계를 안다. 【심화】 ◦ 우리말의 음절 유형을 조사한다.
(3) 형태소와 낱말의 개념을 안다.	생활국어 2학기 2. 낱말과 형태소 (2) 형태소	【기본】 ◦ 한 문장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석해 보고, 형태소와 낱말의 개념을 각각 말한다. 【심화】 ◦ 형태소와 낱말의 관계를 설명한다.
(4)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의 개념을 안다.	생활국어 1학기 4. 국어 생활의 반성 (1) 외래어, 은어, 비속어, 유행어	【기본】 ◦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에 속하는 예를 각각 찾는다. 【심화】 ◦ 은어, 전문에, 속어, 비어, 유행어의 특성을 설명한다.

(5)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안다.	생활국어 2학기 5. 낱말의 의미 (1) 동음이의어 (2) 다의어	【기본】 ◦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예를 국어사전에서 찾는다. 【심화】 ◦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이용하여 짧은 글을 쓴다.
(6) 담화의 구성을 안다.	생활국어 1학기 6. 상황에 맞게 말하기 (1) 상황에 맞게 말하는 방법 (2) 상황에 맞게 말하는 연습	【기본】 ◦ 담화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말한다. 【심화】 ◦ 표현하거나 이해할 때, 담화의 구성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7) 국어를 순화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생활국어 1학기 4. 국어 생활의 반성 (2) 국어 생활 반성하기	【기본】 ◦ 국어 순화의 필요성을 말한다. 【심화】 ◦ 국어 순화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친구들과 토론한다.

<1학기 - 4. 국어 생활의 반성>

이 단원은 학생들의 국어 생활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올바른 국어 생활의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영상매체의 발달뿐만 아니라, 컴퓨터 통신의 발달로 요즘 학생들의 국어사용 실태는 외국어와 비속어, 신조어, 인터넷 통신 용어의 남용으로 정상적인 국어 규범을 무시한 국어파괴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잘못된 국어사용으로 앞으로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단원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동안의 잘못된 국어사용을 반성하며 올바른 국어생활로의 개선 방향을 찾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 단원에서 아쉬운 점은 낱말의 구성과 형태소 분석에 앞서서 낱말을 종류별로 분류한 품사가 먼저 제시되지 않은 것이며, 담화의 구성이나 국어생활의 반성은 문장 구성 요소의 순서로 보았을 때, 9학년에 제시되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라 생각된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외래어, 은어, 비속어, 유행어의 뜻을 알 수 있다와 우리말을 바르고 곱게 쓸 수 있다로 설정되었으며 이 학습 목표는 소단원 '(1) 외래어, 은어, 비속어, 유행어 (2) 국어 생활 반성하기' 의 내용을 학습하고 달성하기 위해 지식과 태도의 측면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이 단원의 학습 활동은 외래어, 은어, 비속어, 유행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활동과 학생들 스스로가 사용하는 외래어, 은어, 비속어, 유행어를 찾고 자신의 국어 생활을 반성할 수 있는 활동으로 나타난다(교육부: 중학교「생활국어」1-1, 2008)pp.81~89.

하지만 이 단원에서는 실제 사용되는 잘못된 국어 생활의 예나 활동을 다양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의 다양한 자료의 사용과 더불어 학생들 스스로가 탐구하고 발견하는 자유로운 활동을 유도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단원의 보충·심화 학습은 자기 점검으로 제시된 활동을 통해 학습 활동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이 부분에서는 외래어, 은어, 비속어, 유행어를 찾고 자신의 국어생활을 반성할 수 있는 세 가지 활동을 제시해 학습 내용을 더욱 쉽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중학교「생활국어」1-1, 2008)pp.90~93.

<1학기 - 6. 상황에 맞게 말하기>

이 단원은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의 국어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담화, 즉 이야기 상황 구성 요소를 이해시키고 이 담화 상황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말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되었다. 또한 말하기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는 듣기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단원은 듣기, 말하기, 문법 영역이 통합된 단원이라 하겠다. 제7차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국어사용 능력의 향상'에 가장 필요한 지식인 담화 상황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담화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 알기와 상황에 맞게 말하기의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 학습 목표는 소단원 '(1) 상황에 맞게 말하는 방법 (2) 상황에 맞게 말하는 연습'의 내용을 학습하고 담화 상황에 맞는 지식과 태도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목표이다. 이 학습 목표에 따라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활동은 실제적인 국어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인 담화 상황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이해하며 이를 고려하여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활동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교육부: 중학교「생활국어」1-1, 2008)pp.122~35. 교과서에 제시된 이론적 내용은 담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담화 상황 구성 요소[7]가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이론 중심의 설명식 수업이 되기 쉽다. 이를 위해 실제 담화 상황에서 이 내용들을 직접 찾아 볼 수 있도록 활동 중심으로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의 학습 활동에서는 실제적인 상황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사의 유연성[8]과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보충·심화 학습의 자기 점검 문항은 두 가지 활동으로 제시되었다(교육부: 중학교「생활국어」1-1, 2008)pp.136~40. 이 부분은 실제 생활을 교과 지식과 연관 짓는 활동으

7) 담화 상황 구성요소는 말하는 목적, 말할 대상, 시간적 조건, 공간적 조건, 이야기의 흐름, 분위기이다.

8)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내용을 재구성하고, 연관성 있는 내용을 통합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이 요구된다.

로 학생들에게 직접 자신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입장을 바꿔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2학기 - 2. 낱말과 형태소>

이 단원은 문장의 기본이 되는 낱말과 형태소를 다루고 있다. 낱말과 형태소라는 각각의 개념정리 뿐만 아니라, 낱말과 형태소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글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말이나 글이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각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이해하고 각각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낱말을 만드는 연습뿐만 아니라, 낱말을 분석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하여 보다 올바른 국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 제시하는 학습 목표는 낱말의 형태소와 개념 이해와 낱말과 형태소의 관계 말하기로 구성하였고 이 학습 목표는 소단원 '(1) 음절과 어절, 낱말 (2) 형태소'의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문장의 구성요소를 만들고 분석하는 방법을 찾는 지식의 측면이 강조된 것이라고 보인다. 학습 목표는 두 가지로 제시되어있지만 학습활동 부분에서는 낱말의 수를 찾거나 형태소를 분석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학습 목표 또한 그 활동을 포함한 몇 가지의 목표가 더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9)]

이 단원의 학습활동은 낱말과 형태소의 개념, 낱말과 형태소의 관계, 형태소의 종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하도록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하였다(교육부: 중학교「생활국어」 1-2, 2008)pp.34~43. 하지만 지식 위주의 내용편성이라는 단원의 특성상 이 부분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일방적이고 이론적인 교사 중심의 설명식 수업이 되기 쉬우므로 교사와 학습자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보충·심화학습의 자기 점검 문항은 자신에게 알맞은 학습 활동을 선택하여 이 단원의 학습을 마무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음절, 낱말, 형태소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 보는 학습 활동과 형태소의 종류를 구별하고, 형태소와 낱말의 관계를 다루는 두 가지 학습 활동으로 제시되었다(교육부: 중학교「생활국어」1-2, 2008)pp.44~47.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지도해야 한다.

9) 예를 들면, '문장 속에서 낱말의 개수를 찾을 수 있다.' 또는 '문장의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다.'와 같은 연계된 학습 활동 문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학기 - 5. 낱말의 의미>

이 단원에서는 우리말에서 많이 쓰이는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길러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에 대해 학습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낱말의 의미를 문맥 속에서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 올바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단원에서 제시하는 학습 목표는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 알기와 문맥 속에서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 목표는 소단원 '(1)동음이의어 (2)다의어'를 학습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문맥 속에서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고 다의어와 구별하는 과정을 통해 두 가지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단원의 학습활동은 소리는 같으나 의미가 서로 다른 낱말인 동음이의어와, 두 가지 이상의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는 낱말인 다의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문맥 속에서 찾는 연습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였다(교육부: 중학교「생활국어」1-2, 2008)pp.92~99.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홀로 쓰일 때에는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문맥 가운데에 쓰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지므로 글을 읽을 때에는 문맥 속에서 낱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단원의 보충·심화 자기 점검 문항은 크게 두 가지 학습활동으로 구성된다(교육부: 중학교「생활국어」1-2, 2008)pp.100~104.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확인하고, 문장 속의 낱말의 의미를 파악해 보는 활동과,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로 쓰이는 낱말을 이용하여 짧은 글을 쓰거나 의미를 파악하는 심화학습이다. 이 자기 점검 문항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알고 단원의 학습을 마무리해야 한다.

2.4.2. 8학년「생활국어」교과서의 '문법'영역 단원 분석

학기별로 나누어진 8학년(중학교 2학년) 「생활국어」교과서에도 7학년과 같이 모두 4개의 '문법'영역의 단원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단원들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준별 학습활동을 학습목표와 결부시키고 있다. 국어의 음운과 낱말 형성법, 7학년에서와 같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말하기와 쓰기의 표현과 태도의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국정 교과서의 학년별 교육과정에 따른 내용과【기본】,【심화】로 제시된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 그에 따른 교과서 단원은 다음과 같다.

<표6> 8학년 문법 단원-내용-활동 구성표 (교육부,1999)

내용	교과서 단원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
(1)언어의 사회성을 안다.	생활국어 1학기 3.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 (1) 국어의 언어적 특성	【기본】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낱말을 임의의 다른 낱말로 바꾸어서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한다. 【심화】 ◦ 모임별로 임의의 낱말을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의사소통을 한다.
(2)언어의 역사성을 안다.	생활국어 1학기 3.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 (1) 국어의 언어적 특성	【기본】 ◦ 옛말과 현재의 말을 비교하고, 옛말과 다른 현재의 말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심화】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방언에서 옛말의 흔적을 찾는다.
(3)국어의 음운 체계를 안다.	생활국어 1학기 3.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 (2) 국어의 음운	【기본】 ◦ 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각각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는다. 【심화】 ◦ 국어의 음운 체계를 표로 나타낸다.
(4)국어의 조어법을 안다.	생활국어 2학기 2. 낱말 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 (1) 낱말 형성법	【기본】 ◦ 낱말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알아보고, 낱말의 짜임에 따라 낱말의 종류를 나눈다. 【심화】 ◦ 국어의 조어법에 따라 새로운 낱말을 만든다.
(5)관용어의 개념을 안다.	생활국어 2학기 2. 낱말 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 (2) 국어의 관용어	【기본】 ◦ 관용어의 예를 찾아 그 뜻을 말한다. 【심화】 ◦ 관용어와 관용어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기준을 알아본다.
(6)발화의 기능을 안다.	생활국어 2학기 5. 발화의 기능과 표현 (1) 발화의 여러 가지 기능 (2) 발화의 기능을 고려하여 말하기	【기본】 ◦ 발화를 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본다. 【심화】 ◦ 발화가 발화의 기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한다.

(7)국어 사용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생활국어 1학기 6. 바르게 쓰기 (1) 바른 문장 쓰기 (2) 올바른 국어 생활	【기본】 ◦ 국어사용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예를 구체적으로 든다. 【심화】 ◦ 국어사용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토의한다.

<1학기 - 3.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

이 단원은 모든 언어의 공통적 특징인 사회성과 역사성에 대해 배우고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단위를 분석하며 그 중 가장 작은 단위인 음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어렵다. 또한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으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특징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언어가 여타의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성장하며 사라지는 순서를 겪는다는 것을 깨닫고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이라는 특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단원은 문장의 구성단위의 순서로 학습을 해야 한다고 볼 때 7학년으로 배열되어있어야 더 학습의 위계에 있어서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 단원에서 제시하는 학습 목표는 국어의 언어적 특징 알기와 국어의 음운이 지닌 특징 말하기이며 이 학습 목표는 소단원 '(1) 국어의 언어적 특징 (2) 국어의 음운'의 내용을 학습하고 달성하기 위해 지식과 태도의 측면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이 단원의 학습 활동은 우리 주변에서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낱말들을 통해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법 단원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지식으로만 전달되어서는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개념적 지식의 암기가 아닌 실제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 찾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언어생활 속에서 개념을 확인하고 반성하는 학습경험을 제시하며 음운 관련 학습에서는 국어의 음운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연습하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이 단원의 보충·심화 학습은 자기 점검으로 제시된 네 가지 활동을 통해 학습 활동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교육부: 중학교「생활국어」2-1, 2008)pp.76~81. 이 부분에서는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의 개념과 특징을 파악하고 음운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1학기 - 6. 바르게 쓰기>

이 단원은 쓰기와 관련된 문법 단원으로, 학습자가 글을 쓸 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문법에 맞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비문(非文), 은어나 비속어의 남용, 줄임말, 띄어쓰기 등의 맞춤법을 무시하는 표현으로 인한 국어파괴현상의 문제점을 깨닫고 올바른 언어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목표는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쓰기와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 갖기이다. 이 학습 목표는 소단원 '(1) 바른 문장 쓰기 (2) 올바른 국어생활' 의 내용을 학습하고 달성하기 위해 적용과 태도의 측면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이 단원의 학습 활동은 우리말의 어순 찾기, 문법적 요소의 쓰임 알기, 문장 호응에 맞는 글쓰기 활동을 제시하여 스스로 문법에 맞는 글을 쓸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언어생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올바른 언어생활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단원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통해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유도하여 학습자 스스로 확인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잘못에 대해 따져가며 분석하기보다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제시해 비교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단원의 보충·심화 학습은 자기점검으로 제시된 네 가지 활동을 통해 문법에 맞고, 문장 호응관계를 고려한 글쓰기 연습과 올바른 문장 구성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학습목표에 도달하였는지 점검하도록 제시되어있다(교육부: 중학교「생활국어」2-1, 2008)pp.150~157.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예시를 적용해주어야 할 것이다.

< 2학기 - 2. 낱말 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

이 단원은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낱말 형성법을 익히고, 실생활에 사용되는 국어의 관용어를 학습하도록 설정되었다. 의사소통의 기본은 적절한 낱말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 단원은 기본적인 낱말의 형성법을 알고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전 학년에서 학습한 형태소와 낱말의 개념,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이라는 내용과 연계되어있는 문법 영역으로 학생들의 어휘 사용의 폭을 더욱 깊고 넓게 하기 위해 낱말 형성법과 관용어의 개념과 의미, 유래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활동

이 제시되어 있는 단원이다.

이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목표는 낱말의 형성법 알기와 관용어의 개념과 특징말하기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학습 목표는 소단원 '(1) 낱말 형성법 (2) 국어의 관용어' 의 내용을 학습하고 달성하기 위해 지식과 이해의 측면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이 단원의 학습 활동은 우리말의 낱말 형성법을 학습하고 낱말의 종류를 분류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관용어를 찾아내어 보다 효과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단원은 자칫 잘못하면 교사의 주입식 위주의 이론 수업으로 진행되기 쉬우므로 설명에 적절한 예를 들어야 하며, 단순한 지식의 암기가 아닌 실제적인 방법과 원리를 찾는데 학습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용어를 찾거나 의미를 파악할 때에는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하며 학생들의 흥미를 끌만한 내용을 가진 자신들의 경험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 단원의 보충·심화 학습은 자기 점검으로 제시된 네 가지 활동을 통해 낱말의 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교육부: 중학교「생활국어」2-2, 2008)pp.58~64.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하여 자기점검문항에 학생들 스스로 답하고 학습내용의 이해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며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정도에 따라 적합한 활동을 선택하여 지도해야 한다.

<2학기 - 5. 발화의 기능과 표현>

이 단원은 학생들이 발화의 기능을 고려한 말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화는 명령, 요청, 질문, 제안, 약속, 선언, 협박, 축하, 위로, 칭찬, 비난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발화의 형식이나 내용, 상황 등에 의해 기능이 결정된다(교육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2-2, 2008) p.426. 이 내용을 학습하여 학생들의 효과적인 의사 표현 능력을 향상 시키고 목적 지향적인 발화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구성된 단원이다.

이 단원에서 제시하는 학습 목표는 발화의 기능 이해하기와 발화의 기능 고려하여 말하기로 구성되었으며 이 학습 목표는 소단원 '(1) 발화의 여러 가지 기능 (2) 발화의 기능을 고려하여 말하기' 의 내용을 학습하고 달성하기 위해 이해과 태도의 측면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이 단원의 학습 활동은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발화의 여러 가지 기능, 상황과 목적에 따른 발화 기능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사 표현 능력의 향상

을 꾀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발화의 기능에 관한 지식을 인지시킬 때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지도하는 것이 좋다. 흔히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역할극이나 상황극으로 꾸며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재미있고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단원의 보충·심화 학습은 자기점검으로 제시된 네 가지 활동을 통해 부족한 학습을 보완하고 심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교육부: 중학교「생활국어」2-2, 2008)pp.143~53.
구체적인 상황과 목적이 제시된 말하기 활동을 통해 발화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발화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4.3. 9학년「생활국어」교과서의 '문법'영역 단원 분석

학기별로 나누어진 9학년(중학교 3학년) 「생활국어」교과서에는 모두 5개의 '문법' 영역의 단원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단원들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준별 학습활동을 학습목표와 결부시키고 있다. 음운의 변동, 문장의 구조, 품사, 남북한의 언어, 맞춤법 등의 다양한 문법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 단원 배열에 있어서 문제점을 보인다. 문법 학습을 위한 교과서의 체계가 문장의 구성성분의 순서대로 짜여져 있다면, 문장의 구조를 배열하기에 앞서서 품사의 단원이 먼저 제시되어야 학습의 측면에 있어서도 합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교과서의 학년별 교육과정에 따른 내용과【기본】,【심화】로 제시된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 그에 따른 교과서 단원은 다음과 같다.

<표7> 9학년 문법 단원-내용-활동 구성표 (교육부,1999)

내용	교과서 단원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
(1)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안다.	생활국어 1학기 6. 남북한의 언어 (1) 남북한 언어의 차이 (2) 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	【기본】 ◦ 남한에서 쓰는 말과 북한에서 쓰는 말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말한다. 【심화】 ◦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하여 토의한다.
(2)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안다.	생활국어 1학기 4. 음운의 변동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2) 음운의 동화 (3) 음운의 축약과 탈락	【기본】 ◦ 음운 변동 규칙을 알고, 음운 변동의 예들을 각각의 음운 변동 규칙에 대응시킨다. 【심화】 ◦ 음운 변동 규칙과 표준 발음, 표기의 관계에 대해 토의한다.
(3) 품사의 분류 기준과 각 품사의 특성을 안다.	생활국어 2학기 5. 품사의 종류 (1) 단어의 분류 (2) 품사의 특성	【기본】 ◦ 품사의 분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따라 품사를 분류한다. 【심화】 ◦ 품사의 분류 기준이 품사의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한다.

(4) 각 문장 성분의 특성과 문장의 구성 원리를 안다.	생활국어 2학기 2. 문장의 구조 (1) 문장의 구조 (2) 문장의 주성분 (3) 문장의 부속성분과 독립성분 (4) 중의적 표현	【기본】 ◦ 각 문장 성분의 특성을 알아보고, 문장을 구성하려면 어떤 성분이 필요한지 말한다. 【심화】 ◦ 문장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토론한다.
(5) 문장의 구조로 말미암아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현상을 안다.	생활국어 2학기 2. 문장의 구조 (1) 문장의 구조 (2) 문장의 주성분 (3) 문장의 부속성분과 독립성분 (4) 중의적 표현	【기본】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낱말을 임의의 다른 낱말로 바꾸어서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말한다. 【심화】 ◦ 모임별로 임의의 낱말을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의사소통을 한다.
(6)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생활국어 1학기 2.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1) 맞춤법의 기능 (2) 맞춤법에 맞게 쓰기	【기본】 ◦ 맞춤법에 맞게 한 편의 글을 쓴다. 【심화】 ◦ 다른 사람의 글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친다.
(7)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생활국어 1학기 2.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1) 맞춤법의 기능 (2) 맞춤법에 맞게 쓰기	【기본】 ◦ 맞춤법에 맞지 않게 글을 써서 부끄러웠던 경험을 말한다. 【심화】 ◦ 맞춤법에 맞게 글을 써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 국어 맞춤법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토의한다.

<1학기 - 2.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이 단원은 학습자가 맞춤법에 맞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요즘 학습자들의 국어사용 실태를 보면 맞춤법을 무시한 표기의 사용뿐만 아니라 맞춤법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 단원에서 맞춤법의 필요성과 기능을 가르치고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쓸 수 있는 연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맞춤법 학습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한다.

단편적인 '한글 맞춤법 규범'을 제시하여 주입식 수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되도록 다양한 예를 제시하여 맞춤법 학습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좋다.

이 단원에서 제시하는 학습 목표는 맞춤법에 맞게 글을 써야 하는 까닭 알기와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이 학습 목표는 소단원 '(1) 맞춤법의 기능 (2) 맞춤법에 맞게 쓰기' 의 내용을 학습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과 이해의 태도를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이 단원의 학습활동에는 맞춤법이 어떤 기능을 하며 스스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잘못 사용되는 예를 바르게 고치고 적용해보는 활동을 통해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는 태도를 습득하게 될 것이다. 학생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유익하거나 재미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단원의 보충·심화 학습은 자기점검으로 제시된 네 가지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 심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띄어쓰기, 문장 부호, 맞춤법에 맞게 고치기 등의 활동을 통해 맞춤법을 이론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1학기 - 4. 음운의 변동>

이 단원은 음운의 변동 원리와 실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음운 변동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낱말을 예로 들어 학습하게 된다. 음운의 교체, 동화, 축약, 탈락이라는 범주를 소단원으로 나누어 국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지도하되, 음운 규칙 자체를 암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 단원에서 제시하는 학습 목표는 우리말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이해하는 것과 우리말을 바르게 발음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있다. 이 학습 목표는 소단원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2) 음운의 동화 (3) 음운의 축약과 탈락' 의 내용을 학습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해과 적용의 측면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이 단원의 학습활동에는 다양한 음운 규칙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마치 수학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음운의 변동에 대한 예시들이 문제화되어 있다. 이 단원의 내용들은 우리가 사실 모두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식이지만 그것을 의식적인 지식으로 바꾸는 것이 이 단원의 학습이다. 학습자에게 규칙을 외우도록 지도하는 것은 지양하고 실제적인 낱말의 예시를 학습자 스스로 찾게 하여 규칙을 발견해내고 끌어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단원의 보충·심화 학습은 자기점검으로 제시된 네 가지 활동을 통해 앞에서 제시된 음운 규칙을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교육부: 중학교「생활국어」3-1, 2008)pp.90~94. 자신의 이해정도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여 수준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학기 - 6. 남북한의 언어>

이 단원은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학습하며 남북한의 언어의 현실을 이해하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된 단원이다. 남북한의 분단이라는 환경적인 영향이 언어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보고 남북한의 구체적인 단어의 차이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지도해야한다. 그리고 언어를 탐구하는 태도로 북한의 언어 또한 우리 민족의 언어라는 측면에서 장난스럽지 않은 진지한 분위기를 유도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목표는 남북한 언어 차이의 이해와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토론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학습 목표는 소단원 '(1) 남북한 언어의 차이 (2) 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 의 내용을 학습하고 달성하기 위해 이해과 태도, 적용의 측면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이 단원의 학습 활동은 우리말의 어순 찾기, 문법적 요소의 쓰임 알기, 문장 호응에 맞는 글쓰기 활동을 제시하여 스스로 문법에 맞는 글을 쓸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언어생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올바른 언어생활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단원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통해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유도하여 학습자 스스로 확인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잘못에 대해 따져가며 분석하기보다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제시해 비교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단원의 보충·심화 학습은 자기점검으로 제시된 세 가지 활동을 통해 남북한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교육부: 중학교「생활국어」3-1, 2008)pp.140~44. 학습자가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하도록 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남북한 언어의 이질감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지도한다.

<2학기 - 5. 품사의 종류>

이 단원은 단어 분류의 필요성과 기준, 9품사의 특성을 이해하여 언어생활에 사용되는 품사의 성질과 역할을 정확히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단어를 품사별로 분류하고 우리말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론의 제시뿐만 아니라 품사의 종류가 너무 많아 자칫 학습자가 이 내용들을 암기하려고 한다면 지루한 수업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예시를 통한 반복학습으로 이해시키고 활동하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단원에서 제시하는 학습 목표는 단어 분류의 필요성과 기준, 각 품사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학습 목표는 소단원 '(1) 단어의 분류 (2) 품사의 특성' 의 내용을 학습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해 측면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이 단원의 학습활동에는 단어의 분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맞게 품사를 분류하도록 구성되었고 또한 품사의 특성을 알고 문장에서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다. 이 단원의 학습활동에 제시된 예시는 한정적이므로 학습자가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직접 만들고 그 문장 안에서 품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사의 융통성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 단원의 보충·심화 학습은 자기점검으로 제시된 세 가지 활동을 통해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 정도를 따져볼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중학교「생활국어」3-2, 2008)pp.146~50. 단어의 공통점을 찾아 같은 유형의 단어로 분류하는 활동이다. 자신의 이해정도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여 수준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학기 - 2. 문장의 구조>

이 단원은 문장의 성분을 이해하고 실제 언어생활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문장의 성분을 배치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설정되었다. 또한 한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는 중의적 표현을 이해하고 정확한 표현을 만들고 다른 사람의 표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단원은 학습자들이 까다롭게 여기는 부분으로 문장의 성분과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의 내용을 실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여러 가지 예를 제시하고 학습자 스스로 예시문을 만들도록 하여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다. 단원 구성에 있어서 이 단원에 앞서 생활국어 3학년 2학기 5단원 품사의 분류가 먼저 제시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목표는 하나의 문장을 여러 성분으로 분석하여 그

구조를 파악하며 한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 학습 목표는 소단원 '(1) 문장의 구조 (2) 문장의 주성분 (3) 문장의 부속성분과 독립 성분 (4) 중의적 문장' 의 내용을 학습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과 이해의 측면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이 단원의 학습활동에는 여러 단어로 구성된 문장의 의미 구성을 알 수 있도록 예문을 분석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며 문장의 성분을 찾고 문장에서 그 성분의 역할을 찾아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중의적 문장에 대해 학습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 교과서에 있는 학습활동의 내용으로만 학습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흔히 쓰는 문장들을 예로 들어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단원의 보충·심화 학습은 자기점검으로 제시된 두 가지 활동을 통해 문장 속에서 성분을 찾거나 생략된 성분을 알아보고 앞서 제시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해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있으므로 교사는 수준별로 학생들의 이해정도를 파악하여 지도해야 한다(교육부: 중학교「생활국어」3-2, 2008)pp.54~56.

지금까지 제7차 교육과정 국정 교과서 '생활국어'에 나타난 문법 영역의 학년별 단원을 살펴보았다. 교과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단원이 지식과 태도의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법 영역은 문법지식의 측면을 학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어서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끊임없이 학습해야 국어생활에 있어서 더 발전된 태도를 구현해 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 안에서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태도뿐만 아니라 교사가 문법적 지식을 학습자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음 장에서는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연구해보고 실제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 문법 영역 교수·학습 방안

3.1. 문법 영역 지도 방법의 문제점

문법 교육의 지도 방법이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강의식, 암기식 학습에서 탐구학습[10]으로 전환을 시도한 것은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부터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문법 영역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 및 주입이 아니라 원리나 법칙을 발견하는 탐구과정을 중시하되 언어 현상에 관한 흥미와 관심이 증진되도록 지도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탐구학습 방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교과서에 반영되었다.[11]

문법 교육은 국어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법 교육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실생활에서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그것은 문법을 실제 국어생활 속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문법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일방적인 설명보다는 여러 가지 언어 자료와 언어생활 속에서 학습자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탐구학습을 지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문법 영역의 지도 방법은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식 수업[12]에 의한 지도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주입식, 암기식 학습이 만연해있다. 때문에 학습자들은 문법 영역의 부분의 수업을 따분하고 어려운 암기과목으로 생각하기 일쑤이다.[13]

---

10) 탐구학습은 학습자들에게 직접 관련성이 없는 학습 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 연습하는 전통적인 교수법에서 벗어나고자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교수법이다. '탐구'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습자 스스로가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교수학습 방법이다(박명진, 2003).

11) 제7차 교육과정 해설서(2001)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제6차 교육과정까지 금과옥조로 삼아 주입하던 학교 문법의 내용은 국어 현상을 더 진실에 가깝게 이해하기 위한 탐구학습의 주된 자료로 삼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제6차 교육과정보다 더 구체적이다.

12) 설명식 수업이란, 지식이나 기능을 교사 중심의 설명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교수법이다.

13) 문영찬(1993)이 조사한 문법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문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고교생들의 설문에서 '꼭 필요'가 15.7%, '약간 필요'가 67.5%, '필요 없다'가 7.6%, '관심 없다'가 5.7%, 무응답이 3.5%로 나타나 있다. 또한 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문법 규칙이 복잡해서'가 50.4%, '여러 원리를 이해할 수 없어서'가 22.5%로 나타났다. 그래서 아직도 학교 문법의 이론이 체계화되지 못한 것과 교사가 그 문법 이론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교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효진(2004)의 연구에서도 문법 영역에 대한 고교생들의 선호도에서도 '매우 즐겁다(3%)','즐겁다(21%)', '그저 그렇다(44%)','즐겁지 않다(31%)','매우 즐겁지 않다(1%)'로 나타났고, 문법 영역이 즐겁지 않은 이유에서는 '공부한 내용이 어려워서(31%)','공부한 방법이 재미없어서(33%)','공부할 자료가 부족해서(20%)','공부할 과제가 많아서(15%)','기타 다른 이유로(1%)'로 학습자가 문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은 교수·학습 방안의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실제 수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해내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문법의 내용을 교수·학습 할 때에 어떤 질문이나 학습 과제에 대한 결과로서의 답, 즉 결과만을 중시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게 되었는지 학습자들의 문제해결과정 이해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교사와 학습자간의 상호 작용이 이루질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해야 한다. 먼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1998)에 나타난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에 나타난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가. 지식의 전달이나 주입을 지양하고, 원리나 법칙을 발견해 내는 탐구 과정을 중시하되, 언어 현상에 관한 흥미와 관심이 증진되도록 지도한다.
나. 문법 분야에만 치중하지 말고, 국어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정하여 지도한다.
다. 국어를 잘 이해하게 하고 우리 민족, 나아가서는 인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 국어 이해를 위하여 언어 현상을 다룰 때에는 현대 국어를 중심으로 지도하되, 그 이전의 국어의 모습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마. 국어에 대한 지식을 실제적인 국어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바. 언어생활의 통일성을 위하여 마련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등 제반규정을 알고, 그것을 지키려는 태도를 지니도록 지도한다.
사. 민족어로서의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경험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아. 문법 과목의 지도는 국민 공통 기본 '국어'에 제시한 교수·학습에 대한 사항을 참고한다.

이렇듯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에 나타난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입각한 실제 국어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법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을 단순히 주입하는 교육을 지양하고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탐구 과정을 중시하는 교수학습방법,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증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문법 영역의 지도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 실제 현장에서의 학교 문법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

인다.

문법영역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법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한 박영목 외(2001)는 연역적 접근법과 귀납적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실제 지도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지만, 현재는 탐구 학습 등을 중심으로 하는 귀납적 방법이 선호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김광해(1997)는 '문제의 정의→가설 설정→가설의 검증→결론 도출→결론의 적용 및 일반화'라는 탐구 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이 탐구 학습 모형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라고 내세웠다. 그의 연구에서는 탐구 학습 모형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문법을 탐구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선영(2002)은 중학교 문법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해결모형'을 중심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탐구학습과 협동학습의 혼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문제해결모형의 다섯 단계를 개별 활동, 집단 활동으로 나누었으며 집단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에 협동학습을 적용하였다.

이혜선(2004)의 모형은 1단계를 목표의 설정 및 자료의 제시, 2단계를 자료의 검토 및 분석, 3단계를 결론의 도출 및 검증, 4단계를 일반화 및 확대 적용하기, 5단계를 정리 및 평가의 단계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학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법 영역의 수업에 말하기, 듣기, 쓰기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진섭(2001)은 탐구학습 모형을 응용하여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모형인 기초형, 응용형, 발전형 탐구학습 프로그램을 고안하였으나 그 대상을 초등학교 교육현장에 국한 시킨 것에 문제점을 지닌다.

박명진(2003)은 학습자 중심의 탐구학습 모형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교사와 학습자간의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사회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모형개발에 적용하여 수업의 각 단계를 설정하여 수업시작, 문제 제기와 가설 설정, 자료 수집 및 분석, 결론의 도출 및 일반화, 정리 및 평가의 순서를 주장하였다. 이 모형은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다른 교수 매체를 활용하기보다 수업의 많은 부분을 교사의 몫으로 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김귀영(2003)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시한 문법 영역의 개념을 살피고, 제7차 교육과정과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문법 영역의 내용체계분석과 교수·학습 방법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문법 영역 교육의 문제점과 대책의 연구로 문법 영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법 영역의 효과적인 교수-학

습 방안의 대부분이 탐구 학습으로 귀결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교수·학습 지도안과 같은 구체적이고 사례를 보여준 것은 미비하며, 있다하더라도 학년이나 단원에 있어서 극히 일부분의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는 것이 많아 효과의 객관적인 검증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탐구학습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년별 한 차시 분량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여 더욱 구체화된 탐구학습을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설명식 수업과 탐구 학습 모형 수업을 연구자가 직접 실험하여 학습 성취도의 결과를 분석 한 후 더 효과적인 수업 방법을 고안하고자 한다.

3.2. 설명식 학습과 탐구학습의 실험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생활국어 교과서 2단원 '낱말과 형태소' 부분을 같은 수준의 두 학급에서 실험해보았다. 한 학급에서는 설명식 수업 모형을 사용하였고 또 한 학급에서는 본 연구자가 문법 교육에서 이상적인 수업모형으로 생각하는 탐구학습 모형[14]을 시도해보고 같은 형태의 문제지를 풀게 하였다. 문제지의 채점 결과에 따라 학습 성취도가 높은, 효과적인 수업모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명식 수업모형>

대단원명	2.낱말과 형태소	대상	1학년 6반	지도 일시	2010.7.10. 3교시	장소	1-6 교실
소단원명	(2) 형태소			활동 유형	설명식 수업		4/4차시
학습 목표	1.낱말과 형태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2.낱말과 형태소의 관계를 말할 수 있다.						
CD-ROM 사용 E-mail 사용 온라인대화 웹사이트 멀티미디어자료 응용프로그램 시청각기자재 참고자료							
학습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입 (5분)	인사 출결확인 전시학습	▷ 음절과 어절,낱말의 개념을 묻는다. -대답한다. ▷형태소의 개념과 문장의 구성단위에 대해 묻는					

14) 탐구학습 모형이란, 자료를 토대로 경험과정을 통해 의문을 풀고 학습자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해나가는 형태의 학습 모형이다.

전개 (35분) 정리 (5분)	확인 정리하기 형성평가 차시예고	다. -대답한다.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학습목표를 정확히 인식하여 학습에 참여한다. ▷형태소 분석에 대해 설명한다. - 메모하며 듣는다.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를 푼다. - 문제를 푼다. ▷형태소 분석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정리한다. ▷형성평가를 실시한다. -형성평가를 함께 풀어본다. ▷차시학습을 예고한다.	판서

이 모형은 교사 중심의 설명식 수업 모형으로 형태소 분석에 대하여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이끌어 나가는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설명식 수업에 있어서 교사의 설명 능력이 중요하다.

<탐구학습 모형>

대단원명	2.낱말과 형태소	대상	1학년 3반	지도 일시	2010.7.10. 3교시	장소	1-3 교실
소단원명	(2) 형태소			활동 유형	탐구학습 모둠학습		4/4차시
학습 목표	1.낱말과 형태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2.낱말과 형태소의 관계를 말할 수 있다.						
CD-ROM 사용 E-mail 사용 온라인대화 웹사이트 멀티미디어자료 응용프로그램 시청각기자재 참고자료							
학습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입 (5분)	인사 출결확인 전시학습	▷ 음절과 어절,낱말의 개념을 묻는다. -대답한다. ▷ 형태소의 개념을 모둠장이 모둠원들에게 설명					PPT

전개 (35분) 정리 (5분)	확인 정리하기 형성평가 차시예고	하도록 지도한다. -모둠장은 모둠원에게 설명한다. ▷ 문장의 구성단위 카드를 모둠원이 하나씩 들고 구성단위 순서대로 줄을 서게 한다. - 카드를 들고 자신의 순서에 맞게 선다. ▷ 제시된 학습 목표를 읽게 한다. - 학습 목표를 인지하며 읽는다. ▷ 학습 목표와 오늘 배울 내용의 상관 관계를 모둠에서 토의하도록 지도한다. - 토의한다. ▷ 모둠에서 토의한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 발표한다. ▷ 형태소 분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예문을 주고 문제를 풀게 한다. - 설명을 경청하고, 문제를 푼다. ▷ 각자가 푼 문제의 정답을 모둠원과 함께 나누어보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한다. - 국어사전을 찾고, 모둠원과 상의하며 정답을 찾아간다. ▷ 교과서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게 한 후 모르는 문제는 질문하도록 지도한다. ▷ 모둠에서 2문제씩 형태소 분석의 문제를 출제하고, 예상정답 또한 만들도록 지도한다. - 문제와 예상정답을 출제한다. ▷ 각 모둠의 문제를 돌려가며 풀도록 한다. - 문제를 풀어가며 형태소 분석에 대해 종합 정리한다. ▷ 형태소 분석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정리한다. ▷형성평가를 실시한다. -형성평가를 함께 풀어본다. ▷차시학습을 예고한다.	문장구성성분 카드 PPT 국어사전 웹사이트

이 학습 모형은 학습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풀어 나가게 하는 탐구학습 모형으로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풀고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고 정답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을 획득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모둠학습을 더해 혼자가 아닌 협동을 통해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3.2.1.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탐구학습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t-test(검증)[15]를 실시하였다.

설명식 수업을 실시한 학생들과 탐구학습을 실시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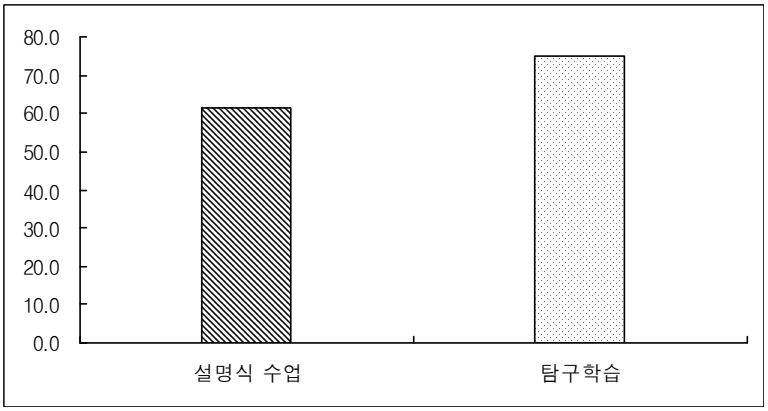
<표8> 설명식 수업과 탐구학습에 따른 학업성취도

구 분	설명식 수업 (N=40)		탐구학습 (N=40)		t	p
	M	SD	M	SD		
학업성취도	61.50	21.55	74.75	22.30	-2.70**	0.008

** p<.01 (N:인원, M:평균, SD:표준편차, p:확률)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이 설명식 수업 61.50, 탐구학습 74.75로, 탐구학습을 실시한 학생이 설명식 수업을 실시한 학생보다 학습 성취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70, p<.01). 따라서 탐구학습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내용을 막대 그래프로 옮기면 <도표1>과 같다.

15) t-test(검증)은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파악할 때 필요한 통계적 기법이다.



<도표 1> 설명식 수업과 탐구학습에 따른 학업성취도

위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집단을 대상으로 같은 차시의 내용을 설명식 수업 모형과 탐구학습 모형으로 실험한 결과 탐구학습 모형의 수업이 학습자의 학습 성취도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학습자에게 탐구학습 모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탐구 학습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가지고 있다. 먼저 실제 수업 현장에서 교사가 탐구 학습 모형을 통해 수업을 전개 할 때에 큰 역할과 태도에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동기 부여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사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가 우선적이므로 탐구 학습이 학습자에게 있어서 스스로 지식과 원리를 발견하게 하고 구조화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업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설문을 통해 문법 영역을 가르칠 때 선호하는 교수학습방법이 설명식 수업이라는 점을 알아보았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문법 교육에 있어서 교사 중심의 설명식 수업보다 탐구학습 방법이 학습 성취도에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다른 여러 수업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설명식 수업과 탐구 학습에 국한해 결과를 분석하였다는 점, 모든 문법 단원에 탐구학습이 적합한가 하는 점이 한계로 보여 지지만 앞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수준별 학습, 학습자 활동 중심의 수업, 과정 중심의 수업, 모둠 학습을 포함시켜 실제 실현 가능한 모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자의 실제 수업시간에 적용한 학년별 국정교과서 생활국어의 문법 부분의 한 차시 분량의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문법 수업을 보이고자 한다.

3.3. 문법 영역의 교수 · 학습의 실제

교수·학습 방법, 수업 전략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 국어 교과의 본질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이렇듯 문법 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학습자들의 학습 성향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김진효,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학교 문법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탐구학습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정교과서 중학교 생활국어 학년별 문법 단원 중 한 차시 분량을 선택하여 본 연구자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사용하였던 탐구학습 모형을 적용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고 그 수업에 대한 특성과 문제점을 찾아보고, 교사와 학습자 모두 즐겁게 문법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학년>

대단원명	4. 국어생활의 반성	대상	1학년 8반	지도 일시	2008.7.10. 3교시	장소	1-8 교실
소단원명	(2) 국어 생활 반성하기			활동 유형	모둠학습, 발표학습		4/4차시
학습 목표	1.국어생활을 반성하는 UCC를 만들어 발표할 수 있다. 2.다른 모둠의 UCC를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다.						
CD-ROM 사용 E-mail 사용 온라인대화 웹사이트 멀티미디어자료 응용프로그램 시청각기자재 참고자료							

학습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입 (5분)	인사 출결확인 전시학습 확인	▷ 오늘날 국어생활의 문제점은? -거칠고 상스러운 말 사용,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말 사용,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의 지나친 사용, 국어의 일반적 규범을 깨뜨리는 말을 사용한다. ▷우리말이 잘못 쓰인 예를 보여준다. -시청하면서 우리말의 문제점에 대하여 인식한다.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학습목표를 정확히 인식하여 학습에 참여한다. ▷모둠별 발표자가 주제를 소개하고, UCC를 차례	인터넷 자료 PPT

전개 (35분)	모둠별 발표 및 작품감상 하기	로 감상한다. - 1모둠 : 은어 - 2모둠 : 비속어 - 3모둠 : 통신용어 - 4모둠 : 외래어, 외국어 - 5모둠 : 토박이말 - 6모둠 : 유행어 -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UCC를 감상한다. ▷다른 모둠의 UCC를 감상하면서 모둠별로 상의하여 평가하도록 지도한다.	UCC
	평가하기	-다른 모둠의 UCC를 감상하고, 미리 나누어준 평가지에 평가한다. ▷모둠별 평가지를 수합하여 최고의 모둠을 발표한다.	모둠별 평가지
정리 (5분)	정리하기	-모둠별 평가지를 모둠장이 제출한다. ▷ 종류별 언어의 문제점과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에 대하여 지도한다. -설명을 들으면서 국어생활의 바른 태도에 대하여 숙지하고, 바른 국어생활의 태도를 갖는다.	
	형성평가	▷형성평가를 실시한다. -형성평가를 함께 풀어본다.	
	차시예고	▷차시학습을 예고한다. (5.내용선정하기)	

위의 지도안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직접 제작한 UCC[16]를 모둠별로 발표하여 단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상황을 설정하여 말하는 연습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탐구학습, 문제해결학습방법의 교수·학습 지도안이다. 모둠활동을 통해 학습자들끼리 돕고 활동하는 과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준별 학습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물론 학습 자료를 만드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실제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자료를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흥미를 갖게 되며, 단원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학습하게 된다. 이 단원은 지식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용적으로

16)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말한다. 사용자가 상업적인 의도 없이 제작한 콘텐츠를 온라인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UGC(User Generated Contents)로 알려져 있다.

쓰게 되는 단원의 성격이 짙으므로 설명식 위주의 수업보다는 실제적인 탐구학습, 문제해결학습, 발견학습 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이 요구된다. 다만 수업시간에 너무 소란스러워지지 않도록 하며 모둠원의 모두가 참여하여 모둠원 중 한 사람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학년>

대단원명	2.낱말의 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	대상	2학년 2반	지도 일시	2006.9.11. 5교시	장소	2-2 교실
소단원명	(2) 국어의 관용어			활동 유형	개별학습, 모둠학습		2/4차시
학습 목표	1. 관용어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2. 관용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CD-ROM 사용 E-mail 사용 온라인대화 웹사이트 멀티미디어자료 응용프로그램 시청각기자재 참고자료							

학습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입 (5분)	전시학습 확인	▷인사, 출석확인 -바른 자세로 인사한다. ▷관용어의 개념, 특징, 종류, 효과에 관련된 5문항의 퀴즈를 제시한다. -제시되는 퀴즈를 모둠원끼리 협의하여 해결한다.	화이트보드 OX판
전개 (35분)	모둠활동 개별활동 짝활동	▷정답을 확인하며 전시 학습 내용을 환기시키며, 답을 맞춘 모둠을 확인하여 보상한다. -정답을 확인하며 전시 학습 내용을 환기한다.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고 상황에 알맞은 관용어를 짐작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뉴스 제시 -동영상 자료를 보고 상황에 어울리는 관용어를 짐작하여 짝과 생각을 나눈 뒤 발표한다. (남의 떡이 커보인다/남의 밥의 콩이 더 굵어보인다) ▷앞의 자료와 관련지어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제시된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읽고 인지한다. ▷학습목표 1의 달성을 위한 학습 활동의 내용과 방	인터넷동영상 PPT

정리 (5분)	모둠활동 일제학습 차시 예고 및 과제 제시	법을 안내한다. - 빙고 게임을 통한 관용어의 문맥적 의미 이해 -학습목표 1의 달성을 위한 학습 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안내한다. ▷관용어의 의미 이해를 위한 5가지의 자료를 문제 형식으로 제시한다. -모둠 학습지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번호 순으로 발표한다. -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 등잔 밑이 어둡다. - 빛 좋은 개살구 - 손에 땀을 쥐다. - 물에 빠진 사람 살려 놓으니 보따리 내어 놓으라고 한다. ▷각각의 문제를 해결한 모둠원에게 개별 보상을 하고빙고판이 완성된 모둠에게 모둠 보상을 한다. -모둠별로 문제를 해결하여 빙고판을 채워 나간다. ▷관용어의 문맥적 의미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빙고판이 완성된 모둠은 “빙고”라고 외친다. ▷학습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우리말 관용어에 관심을 가지고 언어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조한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말 관용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언어 생활에 활용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진다. ▷문제를 제시한다 - 자료와 관련된 관용어를 찾고, 그것을 활용하여 짧은 문장을 짓기 - 기사문에 사용된 관용어를 비슷한 관용어로 바꾸기 -짝끼리 의논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다른 짝과 서로 교환하여 확인한다.	개별학습지 모둠학습지

		▷예시 답안을 제시하고 관용어의 이해와 활용 정도를 확인한다. -작성한 답을 발표한다. ▷피드백한다. -예시 답안을 보고 자신의 답안을 보충한다. ▷차시 학습을 안내한다. - 관용어의 유래담과 새로운 관용어 만들기 ▷과제를 제시한다. - 관용어의 유래담 한 가지 이상 조사하기 ▷참고할 사이트를 안내한다. -http://cihi.com.ne.kr/grammer메뉴.htm -http://www.ganada.or/index.our.htm -차시 학습활동과 과제의 내용을 인지하고 참고 사이트를 확인한다.	

위의 지도안은 학습자들에게 매력 있는 퀴즈로써 개개인의 학습동기와 흥미를 높이고 개별 활동과 모둠활동의 보상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여 즐겁게 수업할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이다. 자료의 활용을 통해 학습자의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으며 보다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학습보다 보상에 중점을 두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며 너무 소란스럽지 않도록 교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학년>

대단원명	6. 남북한의 언어	대상	3학년 8반	지도 일시	2010.06.30 3교시	장소	3-8 교실
소단원명	(2) 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			활동 유형	개별학습, 모둠학습		3/4차시
학습 목표	1. 남북한 언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 2.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할 수 있다.						

CD-ROM 사용 E-mail 사용 온라인대화 웹사이트 멀티미디어자료 응용프로그램 시청각기자재 참고자료

학습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입 (5분)	전시학습 확인	▷인사 및 출석 점검 -바른 자세로 인사한다.	화이트보드 OX판
	동기유발	▷먼저 동영상 자료제시 (리틀엔젤스 예술단 평양 공연 상황 동영상 자료) -집중해서 본다.	
	발표활동	▷이 방송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남북이 같은 민족, 뿌리가 같은 언어이지만 이상하고 어색한 느낌이 많이 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대표적인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한다. - 이상하다. - 어색하다. - 과장이 심하다. - 거부감이 든다.	인터넷동영상 PPT
	일제학습	·PPT 자료를 보며 확인한다. - 발음, 억양과 어조 - 어휘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발표한다.	개별학습지

전개 (35분)		▷이번 시간에는 남북한 언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아보고(활동1), 모둠별 토의를 통해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활동2). 그리고 관련 시를 감상하는 것으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활동3). -수업할 내용을 인지한다.	
	모둠학습	▷오늘 배울 수업 목표를 확인해 봅시다. -수업 목표 확인	
		▷남북 언어의 이질화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우리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도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인식한다.	모둠학습지
		▷이제 남북한 언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둠별 토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활동할 내용을 인지한다.	
		▷토의 방법은 가상 시나리오 쓰기, 토의, 신문을 활용한 토의의 세 가지 방법입니다. 모둠별 토의를 통해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모둠별로 주어진 토의 방법을 확인하고, 토의 준비를 한다.	
	모둠학습	▷토의 과정 중 질문이 있으면 물음표를 들고, 토의가 다 끝난 모둠에서는 스마일 표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한다.	

<table>
<tr>
<td>전개
(35분)</td>
<td>토의</td>
<td>
【 모둠별 토의 방법 】
<table>
<tr><th>모둠</th><th>모둠별 토의 방법</th></tr>
<tr><td>1</td><td>· 가상 시나리오 쓰기 →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가상 시나리오를 쓰고 문제 해결 방법 찾기</td></tr>
<tr><td>2</td><td>〃</td></tr>
<tr><td>3</td><td>· 토의하기 → 상황을 설정하여 공통점을 찾고 문제 해결 방법 찾기
(상황 : 국제 결혼을 한 부부)</td></tr>
<tr><td>4</td><td>〃</td></tr>
<tr><td>5</td><td>· 토의하기 → 상황을 설정하여 공통점을 찾고 문제 해결 방법 찾기
(상황 : 세종대왕과 신세대의 언어 차이)</td></tr>
<tr><td>6</td><td>〃</td></tr>
<tr><td>7</td><td>· 신문 기사를 활용한 토의 → 토의 주제와 같은 내용을 다룬 신문 기사를 읽고 문제 해결 방법 찾기</td></tr>
<tr><td>8</td><td>〃</td></tr>
</table>
▷토의 결과 발표
-경청한다.

▷피드백한다.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 비록 차이는 있지만 남북한 언어 모두 아름다운 우리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남과 북 모두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모둠 토의 활동지는 오늘 수업 목표가 잘 나타나도록 육행시 짓기까지 완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시를 감상한다.
내용과 관련지어 제목을 생각해 본다.
</td>
<td></td>
</tr>
</table>

정리 (5분)	차시 예고 및 과제 제시	▷마지막으로 관련 시 한 편을 감상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은 시인지 생각하면서 감상하고, 제목 칸이 비어 있으니 시의 제목도 한 번 상상해 추측해 보기 바랍니다. ▷모둠별로 의논해서 제목을 알아맞혀 볼까요? 이 시를 읽고 난 뒤 느낀 점을 돌아가면서 한 낱말로 표현해 보세요. -다 같이 소리를 맞춰 대답한다. 모둠별로 돌아가며 발표한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남북한 언어 이질화로 인한 문제점 -남북한 언어 차이의 극복 방안 ▷다음은 형성 평가를 풀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기본형은 함께 풀이하고, 다 맞춘 사람은 심화형, 틀린 사람은 보충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충·심화 학습을 하기 위하여 오늘 과제 활동지를 내어 주겠습니다.	

위의 지도안은 모둠별 토의활동과 발표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능동적인 수업태도를 유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이다. 실제로 수업 현장에서의 토의활동은 학습자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칫 딱딱하고 지루해질 수 있는 문법영역의 수업에 있어서 학습자의 흥미롭고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토의활동이 모둠 대표를 비롯한 몇몇의 학생들만 참여하는데 국한되지 않게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토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생각을 펼쳐 낼 수 있도록 교사의 능동적이고 융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탐구 학습 모형을 적용한 학년별 생활국어 교과서 한 차시 분량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위의 지도안은 본 연구자가 실제 수업 시간에 사

용한 교수·학습 지도안으로 문법 영역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단원의 목표나 내용의 활동에 있어서 개인이나 모둠활동에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탐구 학습 모형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탐구 학습 모형이 모든 문법 단원과 학년에 적합한지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제4장 결론

이 논문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 교육의 내용체제와 목표를 고찰하고 현 교과서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중학교 「생활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문법'영역의 단원을 분석하고 이에 알맞은 문법의 교수·학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흔히 교육 현장에서 국어 문법은 교사와 학습자가 내용이 어렵고 따분한 영역으로 생각하여 지루한 수업으로 여기고 흥미를 갖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문법 영역의 수업에서는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편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설명식 교수·학습 형태를 과거와 다름없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서 별 부담이 없고, 학습자들은 그러한 설명식 수업 형태로 인해 문법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며, 문법 영역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습자들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교사들은 문법의 교수·학습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 과정과 관련된 문제점인 것이다. 하지만 문법 영역은 국어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 향상'에 있어서 지식의 기반이 되는 가장 기초 영역이므로 소홀히 여기거나 대충 이해하는 정도로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제6차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문법 영역은 학습자에게 일방적인 교사의 설명식 수업을 지양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구체적인 자료를 능동적으로 사용하여 스스로 지식을 탐구하고 도출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법의 내용은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중학교「생활국어」교과서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하며 지식의 전달이 아닌, 실제 의사소통 상황의 언어사용 기능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에 있어서 설명식 수업 모형과 탐구학습 수업 모형을 직접 실험해 봄으로써 학생들에게 탐구학습 모형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학습 성취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설명식 수업 모형과 탐구 학습 수업 모형에 국한해 결과를 분석하였다는 점, 모든 문법 단원에 탐구학습 수업 모형의 적용이 적합한가 하는 점이 한계로 보여 지지만 앞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수준별 학습, 학습자 활동 중심의 수업, 과정 중심의 수업, 모둠 학습을 포함시켜 모든 문법 단원에 적용하여 실제 실현 가능한 모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교수·학습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동기부여와 흥미이다. 자칫 딱딱하고 지루한 설명식 수업이 되기 쉬운 문법 영역을 학습자 스스로 흥미와 필요성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학습 내용을 탐구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교수·학습 방안이 가장 절실하다. 본문의 단원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중학교 「생활국어」교과서에 나타난 학습활동은 보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설정되었으며, 학습자

와 교사의 실제적인 활동과 탐구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교사는 학생 중심, 과정 중심의 탐구 학습 모형을 적극 연구하고 활용해야하며 이에 따른 교사의 융통성과 적극성도 함께 요구된다.

교과서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 교육의 내용체제와 목표를 고찰하고, 현 교과서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교육 현장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효과적인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한 이 논문을 통해 중학교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또한 효율적이고 즐거운 학습을 위한 문법 영역의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실제 학교 문법 교육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 모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유숙(2006),「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국어지식 영역의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김강희(2003),「탐구모형에 따른 국어지식 평가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김광해(1997),『국어지식 교육론』,서울대학교 출판부.

김광해(1992),「문법과 탐구학습」선청어문 20집.

김귀영(2003),「제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에 대한 연구」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상윤(2010),「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탐구학습과 협동학습의 혼합모형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성미(2003),「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국어지식' 영역 연구」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진섭(2001),「초등학교 문법 교육 활성화를 위한 탐구학습 프로그램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혜숙(2010),「국어 문법 교육의 실태와 효율적인 교육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효진(2004),「중학교 3학년 국어 지식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협동학습과 탐구학습의 혼합 모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노명완(1988),『국어 교육론』한샘.

문신권(2007),「국어지식 영역의 효과적인 교육방법 연구 -중학교 1학년 국어지식 영역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문영찬(1993),「고등학교 문법교육에 관한 연구-특히 음운교육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박경옥(2006),「국어지식 교육의 대안 모색을 위한 고찰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박명진(2003),「의사소통 중심의 국어 문법 탐구학습 방법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박보규(2002),「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지도 방법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선영(2002),「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탐구학습과 협동학습의 혼합모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성익 (1997),『교수·학습 방법의 이론과 실제(Ⅰ)』교육과학사.

박영목 · 한철우 · 윤희원 (2001), 『국어교육학 원론』교학사.

박영목 · 한철우 · 윤희원 (2001), 『국어과 교수학습론』교학사.

박정영(2005),「중학교 국어 교과서 국어지식 단원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박형우(2008),「문법 교육에서의 교사 요인 연구」 청람어문교육 37집.
백 현(1999),「국어 지식 영역의 준별 교수·학습 모형 연구」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성명숙(2003),「제7차 중학교 <생활국어> 분석 -국어 지식 영역을 중심으로-」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의대(2007),「중학교 <생활국어> '국어지식'단원 교육의 문제점 분석 및 재편성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신현주(2006),「중학교 국어지식 영역 분석-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엄미리(2008),「문법교육에 적용한 개념도 활용의 교육적 교과」국어교육 연구.
이경자(2004),「제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지식 단원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이병훈(2003),「중학교 <생활국어> '국어지식' 단원의 연구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월임(1996),「중학교 문법 단원 분석 및 평가」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정희(2006),「중학교 <생활국어>교과서 '국어 지식'영역의 단원 배열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이주영(2002),「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 고찰」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이혜선(2004),「중학교 <생활국어> 국어지식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말하기, 듣기, 쓰기를 이용한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혜원(2006),「제7차 중학교 교과서의 '문법' 영역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유선(2003),「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연구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예지(2006),「생활국어에 나타난 국어지식 영역의 분석과 개선 방향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진하(1999),「국어 지식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천경순(2006),「중학교 교과서의 '국어지식'영역 분석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기본자료

교육부 (1998),『국어과 교육과정』,대한교과서.
교육부 (2007),『국어과 개정 교육과정』,대한교과서.
교육부 (1999),『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대한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 (2008),『중학교 생활국어 1-1』,대한교과서.
『중학교 생활국어 1-2』,대한교과서.
『중학교 생활국어 2-1』,대한교과서.
『중학교 생활국어 2-2』,대한교과서.
『중학교 생활국어 3-1』,대한교과서.
『중학교 생활국어 3-2』,대한교과서.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국어 1-1』,대한교과서.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국어 1-2』,대한교과서.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국어 2-1』,대한교과서.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국어 2-2』,대한교과서.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국어 3-1』,대한교과서.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국어 3-2』,대한교과서.

<부록>

본 조사는 문법 지도의 방법에 있어서 설명식 수업 모형과 탐구 학습 수업 모형의 효과성에 관한 것으로 본 조사의의 결과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생 질문지>

1학년 (　　)반　　(　　)번　　이름: (　　)

생활국어 1-2　　2. 낱말과 형태소　　확인학습

1. 다음 보기의 문장과 어절의 개수가 같은 것은?

<보기: 참는자는복이있다>

① 나는한국인이다
② 하늘이매우푸르다
③ 가을이되었습니다
④ 미술관옆에는동물원이있다
⑤ 하늘은스스로돕는자를돕는다

2. 다음 중 낱말의 개수와 어절의 개수가 일치하는 것은?

① 마음을열자
② 외양간고친다
③ 새가날아간다
④ 나는한국인이다
⑤ 가을이되었습니다

3. 다음 문장에서 '자음+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몇 개인지 고르시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⑤9개

4. 다음 중 가장 많은 형태소로 이루어진 낱말은?

① 푸르다　② 뛰놀다　③ 시나브로　④ 파랗다　⑤ 물안개

5. 다음 중 형태소의 개수가 바르게 연결되지 <u>않은</u> 것은?
① 들이 넓다 - 4개
② 산이 매우 푸르다 - 5개
③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 - 7개
④ 누나는 엄마를 닮아서 참 좋다 - 9개
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 8개

6. 다음 문장을 형태소로 분석했을 때 자립형태소이면서 실질형태소인 것은 몇 개인가?
<누나는 엄마를 닮아서 참 좋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7. 다음 중 어절의 개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참는자는복이있다 - 4개
② 새가날아간다 - 3개
③ 미술관옆에는동물원이있다 - 5개
④ 콩심은데콩나고팥심은데팥난다 - 8개
⑤ 너와나는같은민족이다 - 3개

8. 다음 중 홀로 쓰일 수 없는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것은?
① 풋사과 ② 돌다리 ③ 깨소금 ④ 노랗다 ⑤ 욕심쟁이

9. 다음 문장 중에서 '자음+모음+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몇 개인지 고르시오.
<은철이는 우리반의 축구왕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와 일치한다.
② '이다'는 하나의 낱말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낱말은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다.
④ 낱말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⑤ '국물'은 [국]과 [물]의 두 음절로 이루어진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국어교육	학 번	20068197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김 지 수 한문: 金 智 秀 영문: Kim Jisu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운암산 아이파크 109동 1204호				
연락처	E-MAIL: kjsami@naver.com				
논문제목	한글 : 중학교「생활국어」문법 영역 교수 · 학습 방안 연구 영문 : A Study on Teaching · Learning Way about Korean Grammar of Practical Korean Language Textbook in the Middle School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10년 07월 11일

저작자: 김 지 수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